

2012. 07.16 CHSC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젠더 건강팀 발제 (문현아)

(미용) 성형수술/건강 ?

"아름다움과 건강"의 간극과 결합?

1. 사회적 압력 -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

In South Korea, the prevalence of plastic surgery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peaks

at close to 50% (Scanlon 2005). 이유1. 결혼시장에서 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 이유2. 미용의료성형산업이 규제되지 않기 때문. 특히 1975년 성형전문의 22명, 2006년 1,141명. 문제는 성형전문의 이외의 사람들도 '수술' 가능.

: "여성에게 외모는 생명이다" (정수현, <페이스 쇼퍼> 중에서)

: 외모 중심사회



성형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외모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수려한 외모=경제적 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외모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강력한 기호. 미용목적만이 아닌 귀티나는 외모로 가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귀족수술 열풍'이 일고 있다. 미용하위계급(cosmetic underclass)이라는 용어도 등장. 성형수술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 자기 나이대로 사는 하위계급. 귀족수술은 주름수술, 안면윤곽술등 각종 노화방지 기술과 광대뼈 축소술, 코볼, 이마, 몸매 성형 등 다양하다(서정희, 2008: 20)

身長	平均体重	美容体重	身長	平均体重	美容体重	身長	平均体重	美容体重
145cm	46.2kg	38.9kg	155cm	52.8kg	44.5kg	165cm	59.8kg	50.4kg
146cm	46.8kg	39.4kg	156cm	53.5kg	45.0kg	166cm	60.6kg	51.0kg
147cm	47.5kg	40.0kg	157cm	54.2kg	45.6kg	167cm	61.3kg	51.6kg
148cm	48.1kg	40.5kg	158cm	54.9kg	46.2kg	168cm	62.0kg	52.2kg
149cm	48.8kg	41.1kg	159cm	55.6kg	46.8kg	169cm	62.8kg	52.8kg
150cm	49.5kg	41.6kg	160cm	56.3kg	47.4kg	170cm	63.5kg	53.5kg
151cm	50.1kg	42.2kg	161cm	57.0kg	48.0kg	171cm	64.3kg	54.1kg
152cm	50.8kg	42.7kg	162cm	57.7kg	48.6kg	172cm	64.3kg	54.7kg
153cm	51.4kg	43.3kg	163cm	58.4kg	49.2kg	173cm	65.8kg	55.4kg
154cm	52.1kg	43.9kg	164cm	59.1kg	49.8kg	174cm	66.6kg	56.0kg

주황색이 표준몸무게 핑크색이 예뻐보이는 몸무게

2. '수술' - 의료

- 비성형 수술 vs. 성형수술 : 차이 있는가?

: 유방암이나 종양으로 인한 유방절제술 이후의 수술과 작은 가슴을 커보이게 하기 위한 수술을 '구분' 할 수 있는가, 구분해야 하는가?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가?

-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수술에 대한 과잉 ? 적절한 판단 근거?

- 수술에서 '생명'을 위한? 생명의 질적 차이 판단 가능한가?

- 부작용. 다른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많은가? 아닌가? 수술과 부작용을 의료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생명탄생에서부터 '노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는 '바이오공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인공임신 - 성형 - 노화방지 - 생명연장?

In a remarkable essay on Foucault's work, Di Vittorio shows that, in the name of public health, a body of "medical-administrative" knowledge within medicine developed to manage social danger as a pathological risk. Insofar as the discourse was centered on danger, this science of social danger became the springboard for medicalization or, as Castel (1983) would put it, the social control of undesirable behaviors.

3. 건강에 대한 압력?

- 건강? 혹은 '완벽한' 몸 그리고 '늙지 않는' 몸에 대한 비인간적인 '욕망'의 부추김? 이것과 '건강'의 구분?은 가능한가?

- 혹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이상화된 '평균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박한, 그러나 절박한 심정?

- 광고와 '정보' 제공의 기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여성잡지, 버스, 지하철, 인터넷, 등의 광고

예. <조선일보> 2009.10.26.

본지는 성형수술이 얼마나 깊숙하게 한국인의 일상에 파고들었나 살피기 위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소속 전문의 6명(배준성(JK성형외과), 정재호(프로필성형외과), 윤원준(미고성형외과)

과), 홍정근(메트로성형외과), 윤정섭(윤정섭성형외과))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3m 이내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을 선착순으로 300명 관찰하고 눈, 코 성형을 했다고 추정되는 사람 수를 기록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1명이 조사한 뒤, 또다른 전문의들이 2인 1조로 같은 지점에서 조사했다. 세 지점을 각각 두 차례씩 두달간 조사한 결과, 총 1800명 중 836명이 성형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열명 중 네명 꼴(46%)이다.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비싼 병원에서 표가 덜 나게 성형한 사람이 많을 수 있다"

At that point, we often see medicamentation accompanied by a more private, individual withdrawal from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mad rush towards economic globalization', Gori and Volgo (2005) remind us that hyper-consumerism actually contributes to the fact that **a failure to be is transformed into a failure to have.**

예. 광고와 대중매체에 항상 등장하는 몸이다. 즉 아이들은 평균 여성보다 몸무게가 23 퍼센트가 덜 나가는 몸매에 가차없이 노출되어 있다(한 세대 전에는 평균 몸매의 여성과 매체에 나오는 여성의 몸무게 차이가 8 퍼센트에 불과했다)(쿨릭. 2011: 179-180).

예. Before - after 사진 광고...

-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산업화-> 민영화)와 연관?

"성형의료산업"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적 '부'가 축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한 '보험회사'들이 보험 계약자들의 건강 상태와 사망 가능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건강과 체중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의학의 영역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피보험자와의 계약에서 '체중'을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켜왔던 보험회사들은 의사와 통계학자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과체중과 비만이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가정을 기정 사실로 만들었다. ..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체중의 범주표가 작성 (한서설아, 2003: 68).

- 성형 코리아 : <http://www.prskorea.co.kr/> 사이트에 관련 병원 소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중심)

미용, 성형에 관한 트렌드와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2012 국제미용성형엑스포** 개최.

2012.4.13-15 코엑스 홀

4. 수술의 성공과 실패?

- 약간의 부작용은 성공?
- 실패로 인한 거듭되는 수술?
- 성공으로 인해 지속되는 수술?
- 실패담을 듣기 어려운 '미디어'의 역할?

5. 외모 중심사회와 자본주의의 연관?

- 돈 = 외모?
- 자본, 산업의 문제

2001년 기준 한국의 뷰티산업 규모는 대략 26조원(26조 4천억원).

미모: 화장품 5조 5천억원, 미용성형 5천억원, 다이어트 1조원. 태평양이 전체 67%,

미관: 패션의류시장 9조원, 전문디자인 1조 6천억원,

미담: 캐릭터, 애니메이션 2조 6천억원, 영상물-음반방송-게임 2조 8천억원

미품: 수입명품 2조원. 공연 2천억 공예 1조 3천억원..

2000년 성형외과협회가 발표한 총매출액은 1,700억원. 피부과, 치과 등의 수술까지 감안하면 최소 5천 억원 추정.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음성적 매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1조원 규모라는 추측(서정희, 2008: 39).

* 참고문헌

- 나윤경 외. 2009. "십대 여성의 외모중심 인식을 추동하는 일상과 성형의료산업", <한국여성학> 25권 4호. pp.73-108.
- 동원대학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10. <뷰티산업육성 종합적 홍보전략 수립연구>. 보건복지부.
- 리가토, 메리앤 J. 2002. <이브의 몸>,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 북스
-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 2005. <우리 몸, 우리 자신: 여성이 여성에게 전하는 건강 지혜> 또문몸살림터 엮어옮김. 또하나의 문화.
- 보르도, 수전. 2003. <참을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옮김. 또하나의 문화.
- 서정희. 2008. <아름다움을 향한 무한도전: 성형소비문화> 내하출판사.
- 신명수. 2011. "한국미용성형외과의 현재와 미래". <대한의사협회지> 6월 54(6): 581-588.
- 심상민, 최순화. 2003. <뷰티(美)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전양진, 성희원. 2007. <화장하는 남자가 시장을 바꾼다> 삼성경제연구소.
- 쿨릭, 돈. 앤 메넬리 엮음. 2011. <팻: 비만과 집착의 문화인류학> 김명희 옮김. 소동.
- 한서설아. 2003. <다이어트의 성정치> 책세상.
- Featherstone, Mike, Mike Hepworth, and Bryan S. Turner, eds. 1991.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Sage Publications.
- Suissa, Amnon Jacob. 2008. "Addiction to Cosmetic Surgery: Representations and Medicalization of the Body". *International Journal Mental Addiction*. 6: 619-630.
- Turner, Bryan S. 1991. "Recent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the Body", Featherstone, Mike, Mike Hepworth, and Bryan S. Turner eds.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Sage Publications.
- Davis, Kathy. 1995. *Reshaping the Female Body: The Dilemma of Cosmetic Surgery*. Routledge.